

## 안식일의 법도

<sup>1</sup>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sup>2</sup>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sup>3</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밧과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sup>4</sup>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sup>5</sup>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눅6:1-5)

안식일 관련, 옛세 동안은 주님의 노고와 지옥과의 싸움을 뜻하고, 일곱째 날은 그 싸움에서의 승리와 휴식을 뜻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구속을 위한 주님의 모든 역사의 종료를 나타내며, 그렇기에 거룩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주님에 대한 표상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안식일은 신성한 것들을 가르치는 날, 일을 멈추고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들을 묵상하는 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날이 되었다. (TCR.301)

※ TCR(*True Christian Religion*, 참된 기독교) 위 301번 글에 대한 *Ager*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six days representing his labors and conflicts with the hells, and the seventh his victory over them, and consequent rest; and as that day was a representative of the close of the whole of the Lord's work of redemption, it was holiness itself. But when the Lord came into the world, and in consequence representations of him ceased, that day became a day of instruction in Divine things, and thus also a day of rest from labors and of meditation on such things as relate to salvation and eternal life, as also a day of love towards the neighbor.*

눅6:1-5

## ‘안식일의 법도’

이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에 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up>8</sup>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sup>9</sup>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sup>10</sup>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20:8-10)

주님은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하시고요,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날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은 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십니까? 안식일은 본래 세상에 오신 주님이 지옥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시고, 거룩하게 되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인간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적으로는 거룩하셨지만, 외적으로

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당신의 외적 성품, 즉 인성(人性, *human*)을 거룩하게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인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전체가 달려들어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성문서에서는 주님을 향한 지옥의 도전을 인류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비례하는 것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 지옥은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공격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시큰둥하면 지옥 역시 그걸로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공격은 그 사랑에 비례하는 것이었다 하니! 주님이 받으신 시험이 얼마나 치열하고 참혹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싸움인 십자가 시험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인성은 당신 안에 있는 여호와의 신성과 완전히 하나 되셨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거룩한 인간이 되셨

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가장 높은 의미로는 옛세 동안은 주님의 싸움과 수고를 뜻하고요, 일곱째 날은 모든 싸움을 이기신 후에 오는 휴식과 평화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안식일은 바로 주님 자신을 표상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up>1</sup>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런데 이것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두 번째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셨다**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두 번째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 말

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안식일의 속뜻은 주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거듭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막 생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말씀에서 두 번째 안식일에 주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모습은, 신앙인들이 교리에 따라 이웃 사랑의 선을 실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받은 교회 교리를 뜻하고요, 밀 이삭은 이웃 사랑의 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삭을 손바닥에 놓고 비벼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삭을 손바닥에 놓고 비벼 먹는 것은 구약의 제사 방법 가운데 요제(搖祭)의 행위를 연상케 합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손에 들고 흔드는 행위입니다. 말씀의 속뜻으로 보면 손바닥에 제물을 올려놓는

눅6:1-5

## ‘안식일의 법도’

것, 또는 손으로 제물을 붙잡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선을 온 힘을 다해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손에 들고 흔드는 것은 믿음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제물을 붙잡는 것은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나타내고요, 그것을 흔드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문서에는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이삭을 비볐다고만 하지 않고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에서 손을 비비는 것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먹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이나,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흔드는 요제의 행위는 내적으로는 같은 뜻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즉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진리와 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와 그들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

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대해 많이 알면 될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진리를 온 힘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삭을 손으로 비볐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의 의미를 요약하면, 첫째는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믿음이 확고하게 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나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로 표현했습니다.

2절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sup>2</sup>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 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즉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내면에는 불경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들입니다. 위선자와 같은 거짓말쟁이들은 내면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빛이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읽어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만 알뿐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불 때 주님과 제자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지 말고, 주님 뜻에 부합하는 행동만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상태는 주님께서 속 사람을 통해 겉 사람 안으로 오셔서 겉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날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몰랐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올인,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회의 구전 율법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무려 서른 아홉 가지나 규정해 놓고 있다 합니다. 음식 만드는 일, 농사 관련, 그리고 건축 관련과 같은 모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로 분류했습니다.

※ 실제로 현대 유대인들조차 아주 세속적 유대인들 말고는 대체로 좀 지독한데요, 이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예를 들면, 집에 전등이 나가 새것으로 갈아야 할 때도 자기가 안 하고 이방인 이웃을 불러 대신 하며, 호텔 같은 데는 특별히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무조건 전층에 불이 들어온 채 운행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안식일에는 절대 불을 켜면 안 되기 때문이며, 그래서 집에 새 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불이 들어오는 것도 안식일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율법을 아주 심각하게 어기셨다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눅6:1-5

‘안식일의 법도’

<sup>3</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sup>4</sup>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기 29장에는 주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에 사용한 숫양의 고기와 떡을 주어 먹게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sup>31</sup>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sup>3</sup><sup>2</sup>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출29:31-32)

주님께서 그렇게 규례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한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제사장에게 제사에 진설했던 떡을 달라고 하여 그것을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sup>3</sup>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

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sup>4</sup>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sup>5</sup>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 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sup>6</sup>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이더라 (삼상21:3-6)

주님께서 이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다윗이 진설병 먹은 것을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아론과 아들들은 그 속뜻으로는 모두 주님을 표상합니다. 아론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나타내고요, 그의 아들들은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다윗 왕 역시 진리로서 주님을 표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아들들이 광주리 떡을 먹

는 것이나, 다윗이 진설병 먹는 것이나 그 속뜻으로는 결국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론과 아들들이 떡을 먹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이 드리는 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인 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주님 역시 우리 인간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수하들과 진설병 먹는 것이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이나 이것은 그 속뜻으로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즉 주님과 우리 신앙인들이 이웃 사랑의 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안식일의 규례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일이 정당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sup>5</sup>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모든 휴식과 평화가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으로부터 나

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안식일의 휴식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삭을 꺾어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얼핏 보면 한가해 보이는 이 장면은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신앙인들이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속뜻 665번 글을 보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to glorify" signifies to acknowledge and confess.*)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려고 하면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눅6:1-5

## ‘안식일의 법도’

웃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랑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안식일이 아니라 두 번째 안식일에 밀의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안식일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 안식일은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본래 거룩한 인간이신 주님을 표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더 이상 주님의 표상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는 날, 세상의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는 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일에 바쁘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영적인 것을 묵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교회에 나와 말씀을 배

우시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몸소 회당에 나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 교회 분들은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 해서 간혹 외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 교회 가르침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새 교회 가르침에서는 모든 내적인 것은 외적인 것에 담길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런 뜻이 우리 새 교회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출23:12) 아멘

원본

2018-01-21(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11(D4)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